

'제25회 전주한지문화축제' 5월 열린다

전주시·축제조직위원회, 5월 5일~6월 초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서 온·오프라인 통합 개최

한지의 멋과 가치를 즐기고 확산시킬 전주한지문화축제가 5월 5일 개막한다.

올해 한지문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분리 개최됐던 지난해와 달리 6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통합 개최된다.

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한지 응용 상품 공모전과 체험 및 공예교실 등 한지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보탬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선태)는 오는 5월 5일부터 6월 초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제25회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한 지금, 한지를 맞닿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주한지문화축제는 한지의 멋과 가치를 즐기고, 알리고, 함께하기 위해 한지의 쓰임부터 활용, 응용에 대해 널리 알리는 장으로 만들어진다.

축제는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현장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는

뒤 6월 초 전주한지패션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제27회 전국한지공예대전과 전주한지국제패션쇼, 전국한지패션디자인경진대회 등 매년 이어져 왔던 행사는 물론이고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한지체험 및 공예교실, 전주한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이 다채롭게 기획됐다.

특히 신규 프로그램으로 전주한지의 쓰임새를 확장시키기 위한 '한지 응용 상품 공모전'이 눈길을 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는 한지의 대중화와 생활화,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주한지 제조업체와 함께 실용성 있게 발전시킨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한지점방 등 손한지 판매장과 한지 활용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도 꾸며지며, 전주한지 가족캠프, 손품 한지체험, 집콕공예교실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참여의 장도 마련된다.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이탈리아와 바티칸의 지류 및 복원 전문가가 화상으로 참여해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일 방



제25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오는 5월 5일부터 6월 초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안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한지문화축제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지난해 분리

개최됐던 행사들을 올해에는 5월로 통합해 개최기로 하는 등 축제의 일정과 주제, 추진 방향 등을 최종 결정했다. 또 인미에 한지산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을 축제 총감독(집행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선태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현장 중심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던 축제를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진하되 온라인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열 것"이라며 "참여자 사전 신청을 통해 수요자를 확보해 오프라인과 적절히 병행되는 축제로 기획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5주년을 맞이한 전주의 대표축제인 전주한지문화축제가 한지인들과 시민이 맞닿아 만드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한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계하는 등 전주한지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미세먼지와 황사에 가득 쌓인 도심.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은 29일 전북도청 헬기장에서 바라본 전주시의 전경이 뿌연게 흐려져 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전주시, 지난 1주일 '긴급 멈춤' 주간 전수점검해 11곳 적발

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의 '긴급 멈춤' 주간 동안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1개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6개반 353개소, 707명의 점검반을 꾸려 경찰,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의 협조를 받아 다중이용시설 1만4,62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1개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 ▲5인 이상 집합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를 부과한다

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2일 각종 사모임과 소모임, 동호회 활동을 자제하고, 잔치식이나 예식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가급적 참여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카페, 목욕장업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도 가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술집 등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농촌지역 노후 주택 거주민에 건축 관련 무료상담

전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촌지역 노후 단독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축·중축·대수선을 위한 건축 설계 등 건축 전반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상담 서비스는 전주시 건축사회 및 공공건축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진행되며, 신청은 완산·노송·인후·팔복 해피하우스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 건축사회와 지난 2012년 재능나눔 협약을 맺은 이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한 현재까지 212세대에 무료 건축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농촌지역 주택개발사업을 통해서도 11가구에 건축설계·시공·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원스톱 무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건축상담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노후주택과 장애인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건축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시장·장터 기록물 찾아요"

시, 4월 1일~9월 30일까지 수집공모전 진행

시민들이 간직한 도시의 기억과 기록을 모으고 있는 전주시가 이번엔 시민 생활의 중심이었던 '시장'과 '장터' 기록물을 찾아 나섰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주의 시장, 상업·유통 관련 기록물'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제10회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연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기획주제와 공통주제 2분야로 구분해 진행된다.

기획주제인 '시장' 부분의 경우 ▲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제, 생업 관련 기록물 ▲전주부성 4대문의 역사가 담긴 전주의 전통시장 관련 기록물 ▲생활용품, 곡식(쌀가게, 정미소), 포도, 잡곡, 한약재, 특용작물, 각종 어물 등이 유통된 점포, 노포(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 난장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또 공통주제인 '전주' 부분에서는 ▲전주의 역사, 문화유산, 정치·경제·

사회 현상, 주요인물 및 사건(행사) 관련 자료 ▲개인의 터전(장소), 문화·교육, 생활·민속 관련 자료 ▲전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근현대 자료면 응모 가능하다.

공모유형은 ▲문서류(도서(향토지), 간행물, 일기·편지, 메모수첩, 보고서) ▲시청각류(사진, 앨범류, 필름, 음성기록, 영상기록, 오디오) ▲박물류(생활용품, 도면, 지도, 홍보물, 기념품, 문구류, 인쇄물, 의복류, 예술품) 등으로, 2000년 이전까지의 기록물이면 된다.

신청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phm0507@korea.kr)로 신청하거나 전주시민기록관(덕진구 견훤로 264, 063-281-2933)으로 방문해 해당 기록물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록물에 대해 전주 시민기록물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뒤 11월중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이지를 통해 공모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자료를 기증(기탁)한 사람에게는 심사를 통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운누리 상품권이 보상금이 주어지며, 민간 기록물 기증(기탁)증서도 수여된다. 기증된 시민 기록물들은 향우회와 소방시설 등 보존 설비가 갖춰진 전주시민기록관(견훤로 264) 수장고에 전주의 기록자산으로 보관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1시간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내달 1일부터 17개 주차장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7개 공영·부설주차장에 제공했던 '1시간 무료 개방'을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로 전환되는 공영주차장은 ▲중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오거리 ▲덕진광장 ▲건산천 제1·2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노송천 ▲신시가지 공영주차장(도청, 시티병원, 농업, KB, 흥산, 비보이) ▲만성지구 공영주차장(오케이타워 앞) 등으로, 총 2,151면이 해당된다.

시는 지난 3개월 간 1시간 무료 개방을 통해 총 28만4,000여 대의 차량이

약 2억7,000만원의 주차비를 아끼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상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차권(1시간 이용권 500~600원)을 구매한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44만1,345대 차량 소유자에게 6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